

바닥매트, 자전거 등 비대면 수요증가 30개 제품 리콜명령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(2021. 04. 07.)

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,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.

❖ 안전성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2021. 2. ~ 3.(2개월)
 - 조사대상
 - (어린이) 자전거, 바닥매트, 완구, 실내의류, 침구류, 키보드 등 376개 제품
 - (전기) 마사지기, 오븐, 에어프라이어, 공기청정기, 발욕조, 등기구 등 229개 제품
 - (생활) 마스크, 헬스기구, 카페트, 전기자전거, 롤러스케이트, 압력솥 등 119개 제품
 - 주요 시험항목 : 유해 화학물질, 제품 내구성, 감전보호, 온도시험 등
-
- 조사 결과, 유해 화학물질,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,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(이하 리콜명령)을 내렸다.
 - 아울러,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하였으며, KC마크, 사용연령,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.
 -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(어린이제품 : 바닥매트, 자전거 등 21개, 전기·생활용품 : 오븐, 압력솥 등 9개)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❖ 어린이용 바닥매트, 자전거, 승용완구 등 21개

구분	내용
바닥매트 (3개 제품)	•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(0.2mg/m ² ·h)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(0.1%)를 최대 645배 초과한 바닥매트 3개
자전거, 승용완구 (8개 제품)	•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(0.1%)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,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(5cm이하)에 미달하여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
미술공예완구 (5개 제품)	•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(MIT, CMIT)가 검출된 비즈공예완구 2개,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1개 등
섬유제품 (5개 제품)	•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(75mg/kg)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(14cm)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, 납이 기준치(300ppm)를 최대 2.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

- 국가기술표준원 코로나 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.
- 또한,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 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 해나가겠다고 밝혔다.